

자발적 탄소거래시장에 적극 참여해 선발자의 이익 챙겨야 할 때

Richard Sandor 시카고 기후거래소 회장



최근 시카고기후거래소의 운영 현황을 평가해주시오.

거래시스템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규모(volume)와 거래계좌(open interest) 증가여부가 그것입니다. 먼저 2009년 8월 기준 일일 평균 탄소선물 거래량(The 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은 7,584건으로 전년 동기의 1,05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거래계좌 개설 수도 전년대비 140 퍼센트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카고기후거래소는 그야말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CX 덕분에 미국에는 배출 상한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탄소배출권 규모가 이미 세계 어느 단일국가보다도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중국까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가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일종의 '학습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국가차원에서 강제적인 탄소거래 시스템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자발적 시장에 참여한 기업(early actor)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당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이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선결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가격 신호(price signal) 기

Dr. Richard Sandor 주요 경력

- ▶ 시카고 기후거래소(The Chicago Climate Exchange: CCX) 설립자겸 현 회장(Chairman)
- ▶ 세계 최초로 자발적 총량거래체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발 및 도입
- ▶ 1970년대 시카고 선물거래소(The Chicago Board of Trade) 부사장 및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임
- ▶ 미국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 시장 개발자로서 미국 대표의 선물시장 전문가
- ▶ 2007년 Time지 선정, '환경을 지킨 위인' 중의 한명

CCX

- ▶ 설립 연도 : 2003년
- ▶ 주요 연혁 : 시카고 기후 거래소는 북미 유일, 세계최초의 자발적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로서 현재 350여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회원제로 운영



능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가격 신호, 일종의 기준 잣대가 있어야 혁신(innovation)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비용 효율적인 제도적 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CCX를 만드는데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당시 미국에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을 개설하게 되었는지요?

저는 1980년대 말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산성비(acid rain) 문제가 큰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미국 정부는 총량거래체제(Cap-and-Trade)를 최초로 논의하게 되었는데 저도 여기에 관여했습니다. 비록 연방차원에서 제도 도입에는 실패했지만, 오늘날 미국 동부의 일부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CCX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199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UN)이 주최한 환경회의(Earth Summit)에서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를 듣고 저는 탄소거래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탄소거래를 위한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금융거래 수단을 개발한 것이 결국 오늘날 자발적 탄소거래시장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환경보호라는 공공성과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목표 간에 접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X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CCX는 6개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북미 유일의 총량거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일단 참여하면 배출량 감소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첫째, 시카고 기후관련 파생상품인 시카고 기후변화 선물거래소(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 CCFE)가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 위원회의 관리 하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환경관련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둘째, CCX는 정부나 민간의 탄소배출권 감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지식과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CCX에서의 배출권 거래는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CCX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자산은 선진 금융거래 노하우와 효율적인 인프라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X의 자발적 거래시스템을 해외에 적용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CCX가 중국에서 거둬들인 성과를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텐진시 및 중국 국영석유



기업(China National Petroleum Corp)과의 조인트벤처 형태로 텐진 기후거래소 (Tianjin Climate Exchange: TCX)를 설립한 것입니다. TCX는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1개년 목표의 단계적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데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탄소거래시장은 지역별 별도의 거래시스템이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소위 다자간(pluri-lateral)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탄소거래와 관련 한 개의 글로벌 단일 시장이 존재하기보다는 19세기 면(cotton)직물 거래나 오늘날의 석유 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 시스템이 지역별로 산재하는 형태로 탄소거래시장이 운영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더욱 깨끗한 공기와 물, 풍부한 자원 생산,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한국기업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CCX 회원사는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CCX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CX 회원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도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업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나 신용평가기관에 좋은 기업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경제적 효과야말로 '선발자의 이득(early actor's advantag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이미지야말로 관련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삼성이나 LG 등 한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CCX는 그러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상원에서 계류 중인 기후변화 법안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CCX도 이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매우 분주하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큼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반에 잠시 언급했지만 CCX가 제공하는 탄소거래 가격은 일종의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신호로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기업은 자신이 감소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해 탄소저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만회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초과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경제 시대에서 기업의 체질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인 비용절감을 통한 체질 개선, 신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독립과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리더십 회복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IK**